

김훈 소설에서 돈과 자본의 문제*

— 『공무도하』를 대상으로

김 주 언**

요약

이 연구는 김훈의 『공무도하』에 나타난 돈과 자본의 문제를 탐구한다. 작품에서 돈은 자본과 겹쳐 있기도 하고, 구분되기도 한다. 돈과 자본의 문제를 탐구하는 일은 우리 시대 디스토피아를 분석하는 일이며, 극복되지 않은 자본주의 근대성을 탐구하는 작업이다. 이 연구는 경제 자본과 구별하여 문화 자본 개념을 분석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소설의 심층 세계에 접근하고자 했다. 자본이 구조화하는 세계는 쉽게 식별되지 않는 추상성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 자본의 관점에서 보자면 계층사회의 뚜렷한 특징을 세 층위에서 분별할 수 있다. 첫째, 사회 구성원의 계층 성향에 따라 뚜렷한 대조가 나타나는 언어 스타일이 있다. 둘째, 자유 취향과 필요 취향으로 구분되는 음식 취향을 계층 성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문화 자본의 소유에 따라 양극화가 나타나는 노동의 유형이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계층 구조화가 드러나는 양상을 밝혔다. 희미한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김훈의 소설에는 자본주의적 일상성 외부를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랑의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의 사랑은 특정의 제도적 정체성이나 보상 가치, 심지어는 사랑의 실현 가능성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사랑하게 하는 문학의 윤리 문제를 사유했다.

주제어: 자본주의 근대성, 물신숭배, 문화 자본, 취향의 사회학, 공통적인 것, 인클로저 운동, 사랑의 가능성

* 이 연구는 2021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수

목차

1. 머리말: 왜 돈과 자본이 문제인가
2. 물신의 피조물들
3. 문화 자본과 계층 구조화의 문제
4. 공유수면의 비극과 사랑의 가능성
5. 맺음말: 문학의 윤리

1. 머리말: 왜 돈과 자본이 문제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장르가 동화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톨스토이는 이 물음을 제목으로 삼은 작품에서 정답을 사랑으로 제시했다. 이해관계나 자신에 대한 염려 따위가 아니었다. 과연 사적 소유에 대해 일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톨스토이다운 답변이지만, 저마다 심중에 ‘돈이 최고’라는 생활 철학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로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답변일 수도 있겠다.¹⁾ 소설의 역사를 보면 장삼이사의 서사양식인 소설은 톨스토이의 바람과는 달리 돈과 물질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람살이의 기본 동인으로 앞다투어 제시했다. 1920년대 우리 소설에 나타난 돈의 이미지를 고찰한 연구는 그 시대 소설에서 돈은 가장 중요한 행위의 원천적인 동기라고 밝혔다.²⁾ 근대 부르주아 합리주

1)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세계 17개국 성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조사 대상국을 통틀어 가족이 가장 가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38%), 다음으로 직업(25%), 물질적 풍요(19%), 친구이웃(18%) 등이 뒤를 이었다. 17개 나라 중에서 14개 나라 국민이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답을 했다. 물질적 풍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답변한 나라는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은 이 조사에서 또 하나의 진기록을 보태는 유일한 나라였다. 설문조사는 선택지를 여러 개 주고, 복수응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복수응답을 하지 않고 하나만 답하고 답변을 끝낸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한국이었다고 한다. 이 조사는 2021년에 실시되었다.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1020382.html>

2) 우찬제, 「한국 현대소설의 경제적 상상력 연구: 1920년대 소설에 나타난 “돈”의 이미지 고찰

의 생존 방식을 그려냈다고 정평이 나 있는 염상섭의 1930년대 작품 『삼대』는 사람을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 중 으뜸자리에 돈을 놓은 작품이다.³⁾ 서구의 근대문학에도 돈은 사람살이 세속성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이언 와트는 서구 초창기 근대 소설에 나타난 경제적 동기를 주목하는데, 그에 의하면 디포우의 소설 주인공들은 모두 돈을 좇는 인물들이다.⁴⁾ 왜 돈이 이렇게 문제인가. 대체 돈이란 무엇인가.

문학작품, 특히 소설을 읽으면서 드는 이런 의문에 대해 정면으로 답변을 추구한 사람으로 마르크스를 빼놓을 수 없다. 젊은 시절 셰익스피어와 괴테를 읽은 청년 마르크스는 셰익스피어의 『아테네의 타이몬』과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타난 돈의 본질을 고찰한 후에 특히 셰익스피어의 표현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돈이 지닌 두 가지 특별한 속성을 부각시킨다. 1844년의 일이다.

① 화폐는 눈에 보이는 신이며, 모든 인간적이고 자연적 속성을 그 반대의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요, 사물의 보편적 혼동과 전도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들을 친근한 것으로 만든다.

② 화폐는 보편적 창녀요, 인간과 국민들의 보편적 뚜쟁이이다.⁵⁾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표현으로부터 자극 받은 마르크스의 문체는 도발적이다. 그러나 『자본론』에서 “가치 척도로 기능하고, 또한 자신이 직접 또는 대리물을 통해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품이 화폐다.”⁶⁾라고 규정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돈의 본질에 대해 더 많은 비밀을 위의 요약이 함축하고 있는 것 같다. 돈이 ‘창녀’이고 ‘뚜쟁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욕

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45면.

3) 김윤식,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이데올로기 비판』, 서울대 출판부, 1987, 24면.

4) 이언 와트, 강유나·고경하 옮김, 『소설의 발생』, 강, 2009, 93면.

5) 칼 마르크스, 강유원 옮김, 『경제학·철학 수고』, 이론과실천, 2006, 178면.

6) 칼 마르크스, 김수행 옮김, 『자본론 I [상]』, 비봉출판사, 2015, 111면.

망과 대상을 연결해 주는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적 가치로 전도되었다는 판단에서 가능한 표현이다. 욕망과 대상을 매개하되,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점차 없어지는 교환가치의 확대 속에서 돈은 만능이 되고 목적이 된다. 게오르그 짐멜에 의하면 돈은 도구의 가장 순수한 보기인 동시에, 심리적 측면에서 수단이 목적으로 고양된 가장 극단적인 보기이기도 하다.⁷⁾ 이미 신(神)의 위치까지 고양되었다고 셰익스피어가 “눈에 보이는 신”이라고 적었고, 앞의 ①의 요약에서 마르크스가 다시 이를 확인한다. 이제 전근대적 초월적 힘들은 세속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거세되었고, 가장 현실적인 힘인 돈의 독재가 시작되었다. 누구도 스스로 알아서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고, 이 지배 권력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없다. 이 사랑으로부터 소외된다면 불안할 지경이다.

“눈에 보이는 신”이라는 개념은 『자본론』에 이르면 ‘물신숭배(fetishism)’라는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정식화되는 것으로 보인다.⁸⁾ 인간의 노동 생산물에 지나지 않는 상품·돈·자본 등의 물질이 종교세계에서처럼 신비한 성격을 갖고 자립적 존재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이상 신비화는 물질의 자연적 물성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회적으로 부여된 특성일 뿐인데,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어서 종교현상의 비유를 통해서나 이해 가능한 것이다. 돈이 모든 현실을 장악하고 이렇게 위대해지면 돈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간단히 해결을 볼 수 없는 난제가 된다. 이 연구에서 김훈의 장편소설 한 편, 『공무도하』(2009)에 나타난 돈과 자본⁹⁾의 문제에 집중하

7)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옮김, 『돈의 철학』, 길, 2013, 329, 373면.

8) 칼 마르크스, 앞의 책, 94면.

9) ‘자본(capital)’이란 말은 12-13세기경에 등장했는데 그 뜻은 자금, 상품 스톡, 많은 금액의 돈, 혹은 이자를 가져오는 돈이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엄격하게 고정되지 않았고, 무수히 많은 단어들과 경쟁을 벌이다 일정한 의미로 굳어져 갔다. 이 과정 속에는 자본이 반드시 화폐만을 가리키지 않는 과정도 포함된다. 이 단어는 오늘날 화폐가치, 생산적인 화폐, 노동가치 등의 뜻을 거느리게 되었고, 특히 마르크스에 의해 생산수단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이에 대해서는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 옮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1: 교환의 세계』, 1996, 327~32면 참조.

는 것도 결코 간단하지 않은 자본주의 근대성¹⁰⁾의 근본 문제에 대한 탐구가 될 것이다.

김훈의 『공무도하』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망’이라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물신숭배가 일상화된 우리 시대 자본주의 사회의 한 풍속도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김훈은 역사소설 작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대를 작품의 시대 배경으로 취할 때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작가이다. 돈의 문제는 일단 삶의 물질적 토대에 관심을 갖는 리얼리즘 작가로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돈의 문제와 관련된 김훈의 작품에 대해서는 이미 『강산무진』(2006)에서 “돈의 행방을 좇는 것이 소설의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요건”¹¹⁾이라는 평가가 있는 실정이다. 김훈은 『강산무진』 이후에도 『내 젊은 날의 숲』(2010)이나 『공터에서』(2017)에서도 돈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공무도하』는 이러한 일련의 김훈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양상으로 돈과 자본의 문제가 집약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돈과 자본이 텍스트에 구현되는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 돈은 자본과 겹쳐 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되어 식별되기도 한다. 특히 문화 자본 개념은 경제 자본과 구별된 분석 도구로 쓰여질 것이다. 자본의 문제를 이렇게 살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만 아니라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세상을 움직이는 구조적 힘과 작동 원리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결국 물신의 피조물들에게 어떤 자유와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구하고 문학의 윤리 문제로 나아간다.

10) 여기서 사용하는 ‘근대성’이란 개념은 미학적 모더니티를 포함한 여러 의미 갈래를 가진 말을 함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제임슨이 근대성의 유일하게 만족스러운 의미론은 자본주의와의 연관에 있다고 할 때의 그 근대성, 또는 근대성이란 자본주의 그 자체라고 할 때의 그 근대성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용어이다. 프레드릭 제임슨, 황정아 옮김, 『단일한 근대성』, 창비, 2020, 20, 96면.

11) 신수정, 「세속 도시의 네안테르탈인」(해설), 김훈, 『강산무진』, 문학동네, 2006, 366면.

2. 물신의 피조물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돈과 자본이 구체적으로 텍스트에 산포되어 있는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하자. 돈과 자본은 등장인물의 운명을 관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운명 자체를 정의하는 최종 심급이 되기도 한다. 인물의 운명은 자신이 가진 고유의 개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돈과 자본의 속성에 의해 구성되고 피조된다.

생로병사의 문제를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는 김훈의 소설에서 죽음의 문제는 어떤 작품이나 현저하게 드러나는 텍스트의 현실이다. 『공무도하』도 예외가 아니어서 가령, “죽음은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으나 문정수는 개별적인 죽음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이 세상의 헤아릴 수 없는 죽음과 끝없이 되풀이되는 죽음 중에서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죽음은 저 자신의 죽음뿐일 테지만, 그 죽음조차도 전할 수 없고 옮길 수 없어서 이해받지 못할 죽음일 것”¹²⁾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죽음의 보편성은 실은 추상성에 다름 아니고 구체적인 것은 오직 체험 불가능한 개별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의 불가지론적 현실과 개별성에 대한 인식론적 이해는 『공무도하』에 나타나는 죽음의 지배적 현실에 비추어 보면 사치스러운 것이다. 여기에서는 죽음도 몇 푼 돈의 가치로 정산되는 의식 이상이 아니다. 강제철거가 임박한 빈민지역, 주거형 비닐 하우스 밀집지역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기르던 개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발생한다. 소년의 죽음은 위로금과 이주비, 그리고 장례비용으로 정산되고 수습된다. 방조제 공사 도중 해망의 여고생이 크레인에 치여 사망한다. 여고생의 생명은 대체불가, 교환불가의 것이겠으나, 그의 죽음은 다음과 같이 환산되고 정산되어 금융현실의 일부로 사라진다. “방천석은 4개월 후에 해망을 떠

12) 김훈, 『공무도하』, 문학동네, 2009, 131면. 앞으로 텍스트의 인용은 본문에서 괄호 안에 인용 면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났다. 떠나기 전날, 방천석은 광명토건이 은행에서 예치한 위자료 1억2천만원 4개월치 이자를 수령했다. 방천석은 그 돈에서 농협 빚 4천만원과 밀린 이자 1백50만원을 일시불로 갚았다. 상환금은 온라인으로 농협지소에 입금되었다. 같은 날, 방천석은 해망 읍내에서 편의점을 해볼 작정으로 마을금고에 제출했던 농어촌형 창업자금 저리용자 신청을 취소했다.”(194면) 이처럼 소년 소녀의 죽음은 이해 불가능하고 접근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라 장례 절차로 환원되고, 장례의 문제 일체는 다시 그 비용으로 환원된다. 죽음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해망 갯벌의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진행되자 갯가에 살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이주하게 되는데, 보상액을 놓고 소송이 진행된다. 소송 때문에 떠나지도 정착하지도 못하는 이 엉거주춤 상태를 헛집 주인들은 스스로 ‘보상병’이라고 지칭한다. 개발 이익을 위해 뿌리 뽑혀진 삶을 주도하는 것은 원주민이 아니라 자본이다. 토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는 것일 진대, 가치는 상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의미는 불확정성 속에서 부유한다. 잠재적 의미에 걸맞거나 혹은 잠재적 의미 이상의 가치에 대한 기대 심리 속에서 의미와 가치의 선후관계가 엇치락뒤치락하는 사이에 의미와 가치의 전도와 혼동은 일상화된다고 하겠다. 이 이상 일상이 병이고, 이 병은 건강 주권마저도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의 그늘이 신체에 아로새겨지는 경우는 작중인물 후예와 장철수의 경우에 더 심각하고 도저하다.

후예는 결혼 이민으로 해망 바닷가에 시집온 베트남 여성이다. 후예의 삶을 빈틈없이 옥죄이고 있는 것은 상품성의 논리이다. 후예보다 열세 살이 많은 남편 최인수는 베트남에 가서 후예를 점찍는 경쟁자 사내에게 일정을 지불하고, 후예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는 지참금으로 1만 달러를 지급했다. 후예는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결혼 계약을 통해 결혼이 성사되는 서류적 절차를 거치는데, 신랑은 ‘을’이고 신부는 ‘갑’으로 되어 있는

서류였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갑/을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위 아래 위 계적 관계를 갑/을로 표현한 것도 아니다.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것이 있다면 ‘쇼팽’을 통해 신부를 ‘구매한 사람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겠지만, 돈 안 드는 립서비스의 언어는 이 관계를 거꾸로 바꾸어 놓는다. 그런데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돈 안 드는 위선의 말 잔치를 베푸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능사로 아는 것도 실은 자본의 법칙이 철저히 내면화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기혼자였고 자녀도 있었던 후예의 남편은 가솔한 후예를 찾지 않고, 그 대신 결혼 중개업자에게 지참금과 여비의 환불을 요구한다. 후예는 이제 환불의 대상이 된 상품의 처지이다. 상품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소유한 임자의 운명에 종속되는 것이지 그 스스로 자율적인 운명을 갖지 못한다. 상품인 후예는 자신의 사용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다. 그러나 상품 소유자에게는 상품은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교환수단이라는 점에서만 직접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¹³⁾ 요컨대 후예에게는 신체 주권도 없다. 이 점은 내국인 장철수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범법자로 규정된 장철수는 생계를 잃고 신장을 떼내 주기 위해 수술대 위에 발가벗겨진다. 신장 1개의 값은 3500만원에서 4500만원 사이이고, 그의 신장을 사는 사람은 백화점 화재 현장에서 4억 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한 전직 소방관 박옥출이다. 화폐는 무엇이 그것으로 전환되었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¹⁴⁾ 작가의 비판의지는 박옥출의 신장 밀매 대금의 흐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박옥출은 소방관서에서 받은 퇴직금과 동료들이 모아준 전별금을 창업자금으로 투자하고 전무이사로 취임했다. (...) 캐피탈 백화점 화재 현장에서 빼돌린 귀금속을 처분한 돈은 신장염이 급하게 되었을 때 치료비나 이식수술비로 쓸 작정으로 주식형 펀드에 넣었다.”(300면)는 것이다. 박옥출은

13) 칼 마르크스, 앞의 책, 111면.

14) 칼 마르크스, 앞의 책, 143면.

이 주식형 펀드가 두 배쯤 규모로 불어났을 때 매각해 신장 밑매 대금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박옥출은 그가 평생 노동한 정당한 대가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장철수는 생계를 위한 공유수면에서의 가난한 노동이 사후에 불법으로 규정됨으로써 그 노동의 대가로 건강 주권과 신체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이른다. 장철수 역시 후예와 마찬가지로 그의 불행을 주도하는 것은 자본이고 그들은 온전히 자기 몸의 주인조차 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주인은 따로 있다. 생활세계의 모든 일상을 자기 권력으로 식민화하는 돈과 자본이라는 물신은 어느 순간에도 휴식이라는 것을 모른다.

3. 문화 자본과 계층 구조화의 문제

『공무도하』에는 여러 속성을 가진 돈들이 등장하지만 그 많은 종류의 돈에도 불구하고 작중인물이 접근 가능한 수준에서 ‘자본’이라고 할 만한 돈은 거의 없다. 자본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윤을 낳는 것이라고 한다면 화폐는 그 자체로 자본인 것은 아니다. 귀금속 절도로 생긴 돈을 펀드로 만들어 이윤을 낳는 박옥출의 돈만이 『공무도하』에서는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도하』는 이 자본의 비도덕성과 자본 주변부의 그늘을 조명하는 데 그치는 작품이 아니다. 자본이 구조화하는 세계는 생활 세계의 심층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쉽게 식별되지 않는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소설 세계의 심층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 개념을 단순히 경제 자본에 국한시키지 않고 좀 더 시야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자본이 반드시 ‘경제 자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 자본’이란 개념을 프랑스 사회에 고유한 차별과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개념 도구로 잘 활용한 이는 피에르 부르디외였다. 자본을 화폐 가치에 기반한 ‘경

제 자본'만이 아니라고 할 때, 일단 경제적 갈등과는 다른 갈등(그것이 결국 경제적 갈등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의 분석이 가능해진다. 문화 자본은 지식, 교양, 취향, 감성, 리터러시 능력, 문화 예술 생산물의 향유 능력 등 유기체의 지속적 성향들이 육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문화 자본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 계층에 속한 사람과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을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문화 자본의 격차다. 문화 자본 개념을 사회 계층 구조 분석에 활용한 부르디외의 시도는 1960년대 프랑스의 경험적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부르디외의 개념과 관점을 『공무도하』에 나타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액면 그대로 단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유보조항으로 유의하면서 문제의식의 골자에 접근해 보자.

부르디외는 프랑스 사회의 계급 구조와 각 계급에 상응하는 사회 직업의 범주들을 소개하고 있다.¹⁵⁾ 먼저 상층계급 또는 지배계급이 있고, 다음 중간 계급이 있고, 제일 하층계급으로 민중계급이 있다.¹⁶⁾ 교수는 이 계급구조에서 상층계급 또는 지배계급에 속하고 단순 기능공, 단순 노무자 등은 민중계급에 속한다. 이런 식의 분류에 의하면 『공무도하』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 주요 인물로 묘사되는 타이웨이 교수는 그가 가진 경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문화 자본 때문에 상층계급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이웨이 교수가 상층계급에 속한다면 후에는 물론 민중계급에 속하는데 이 민중계급 중에서도 최하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밑바닥 삶’이라고 할 때의 ‘밑바닥’이 후에는게는 계급 피라미드에서의 밑바닥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잠수 기술로 연명해 나가고 있는

15)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새물결, 2006, 15면 참조.

16) ‘계급’이란 말은 엄밀히 말해 마르크스주의의 용어이고 계급 구성원이 스스로 계급의식을 가질 때 사용하면 무리가 없는 용어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계급’이란 말은 ‘계층’과 구분되어 이렇게 엄격히 사용되지 않고 맥락에 따라 혼용될 것이다.

그녀의 삶은 지상의 밑바닥이 아니라 해저에서부터 솟아올라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실재하는 양극화 현상이 계층사회의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특징이다. 몇 가지 층위에서 이 문제에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자.

먼저, 사회 구성원의 계급적 성격에 따라 언어 스타일에서 뚜렷한 대조가 드러난다. 중국의 문물학자로 소개되는 타이웨이 교수는 뛰어난 글을 쓰는 인물이다. “그의 글 속에서 문명과 자연은 배타적으로 구분되지 않았고, 그 두 개의 범주가 대척점에서 맞서 있지 않”(25면)으며, “그의 언어는 개념을 내세워서 사물을 무리하게 장악하려 들지 않”(25면)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문체는 순했고, 정서의 골격을 이루는 사실의 바탕이 튼튼했고 먼 곳을 바라보고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자의 시야에 의해 인도되고 있었다.”(26면)니, 타이웨이는 더 이상의 어떤 경지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최상의 경지에 있는 학자임에 틀림없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단지 그의 세계관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의 언어’, ‘그의 문체’까지도 특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라깡도 그의 『에크리』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문체는 사람 그 자체이다.”¹⁷⁾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 타이웨이의 ‘문체’ 역시 결국 그의 인물됨의 수준을 반영하는 뚜렷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언어가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바로 그 언어를 자기 방식대로 사용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구조화한다. 타이웨이는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 3권의 책을 출간한다. 책은 물론 문화 자본의 객체화된 상태인 것이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의 언어와 지성을 최상의 문화 생산물로 만들어 내보낼 줄 아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거의 문맹 수준에 가까운 인물이 실재한다. 이

17) “문체는 사람 그 자체이다(Le style est l'homme meme).” 라깡은 이 말 속에 들어 있는 간교환과, ‘사람’이라는 게 더 이상 그리 확실한 준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이 말을 『에크리』의 첫 문장으로 사용한다. 자크 라깡, 홍준기·이종영·조형준·김대진 옮김, 『에크리』, 새물결, 2019, 13면.

양극화가 계층사회의 뚜렷한 물증일 터인데, 후에는 한국말을 배워도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잘’, ‘또’, ‘좀’, ‘더’ 같은 단음절의 외마디 말밖에는 발음하지 못한다. 스피박의 어법으로 말해 보자면 이 서발턴(subaltern)은 자신의 처지조차 말하지 못한다.¹⁸⁾ 문체란 문어(文語)의 세계에서나 말해질 수 있는 차원이다. 후어의 구어(口語)는 문어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따라서 문체 따위가 성립할 수도 없다. 문어든 구어든 언어의 스타일이란 일단 단어를 선택하고, 그 선택들을 더 큰 통사구조로 결합해 나가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인데, 후어의 파롤은 결합 장애 이전에 선택 장애의 벽에 갇혀 있는 것이다.

타이웨이보다 못하고 후어보다 나은 언어 스타일의 소유자들이 중간계층을 구성한다. 출판 편집인 노목희, 신문사 사회부 기자 문정수, 사회부 차장, 그들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다음과 같은 언어 스타일을 구사하는 사람들이다.

노목희는 타이웨이의 책을 출판사에서 편집하는 편집인이다. 문화가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도움을 주는 중간자적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법이다. 문정수가 노목희를 찾아가는 밤이면 노목희는 문정수에게 주로 “그냥 넵뒤”(128면)나 혹은 “내버려둬. 그냥”(220면)이라고 말한다.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 많아도 “너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220면) 일에는 관여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쓰지 말라는 것이 애인 문정수를 대하는 노목희의 애정이다. 문정수에 대한 노목희의 여성성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문정수의 목록재계하고 싶은 세속성을 정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침묵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회성을 진정시켜 버린다. 그 결과 문정수는 기성질서 속에서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가치 때문에 굳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일차원적 인간 상태에 머무른다. 계층사회의 출현

18) 스피박에 의하면 서발턴(subaltern)은 자신의 발화 내용을 의미화할 인식론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스피박 외,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490면.

을 저지하는 것이 일종의 교양일진대, 노목희의 교양은 부정과 비판의 교양이 아닌 다만 “괜찮아”라고 말하는 긍정의 교양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양은 교양의 외투를 걸치고 현재를 긍정하고 추인해 버림으로써 어떤 변혁도 도모하지 않는다.

문정수는 상황을 중계할 뿐, 중개 같은 것은 없다. 그의 ‘보도’라는 것도 짝막한 공식 언어의 나열일 뿐이고 무엇을 특별히 초점화하지도 문제시하지도 않는다. 기자는 무엇을 쓰는 사람이지만 무엇을 씀으로써 다른 무엇을 쓰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다. 사실로써 얼마든지 진실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 가장 위험한 언론은 무엇을 쓰는 언론이 아니라 써야 할 무엇을 쓰지 않고 은폐해 버리는 언론일 것이다. 문정수는 박옥출의 절도사건을 인지하고도 기사화하지 않는다. 서술자는 민들레 갯벌 생태에 대한 보고보다도 문정수의 보도에 지면을 더 할애하지 않는다. 문정수는 지식인이지만 단지 팩트 기사 기자에 국한된 인물이고, 팩트 뒤에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가로쳐버리는 방관적 객관주의에 함몰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소설이 지식인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전망 제시와 멀어지는 까닭이다.

문정수가 재직하고 있는 신문사의 사회부 차장 또한 오직 언어 스타일의 개성으로만 기억되는 인물인데, 그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욕설로 대신한다. 아무렇게나 내지르는 습관성 욕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복무하는 자의 말투일 수는 없다. “그들의 그 비루하고 난폭한 말투는 세상을 들여다볼 뿐, 만질 수 없고 개입할 수 없는 자들이 걸도는 세상을 향해 내지르는 근거 없는 적개심이거나, 위악으로 연륜을 과장하려는 허세”(16~17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최고 경지의 타이웨이의 ‘문제’가 있고, 다른 인물들의 ‘말투’나 언어 스타일은 누구랄 것도 없이 한결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양극화를 해소할 만한 중간층이 두텁지 못하고 제 역할을 찾지 못해 무기력할 때, 사회 계층은 최상층과 그 나머지로 재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압도적으로 눈부신 것을 본 다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종의 착시현상일 수 있지만, 이런 관점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타이웨이는 남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무슨 티내기(distinction)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무슨 차를 마신다거나 음악 같은 것을 듣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령, 우리는 음악 취향을 노출시키는 것은 현대소설이 즐겨 사용하는 인물 형상화 방법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타이웨이에게 그 흔한 음악 소품 같은 것을 안기지도 않았다. 타이웨이는 가히 보기 드문 문화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문화귀족인 이유는 문화 자본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부르디외는 문화귀족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자유’를 지목한다. “문화귀족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그 본질은 어떤 규정을 통해서도 규정될 수 없다. 이들은 사소한 규정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이 본질을 규정상 원래 자유라고 말한다.”¹⁹⁾ 타이웨이는 인터뷰 따위는 간단히 거절하고, 고무신을 스스럼없이 신고 다니고, 혈령한 셔츠 차림으로 강연에 임하는 자유인이다. 역사와 문명, 문명과 자연, 사물과 풍경의 범주를 횡단하는 타이웨이의 글은 ‘인생’이라는 한계에도 갇히지 않고 자유롭다. “그의 글 속에서 ‘인생’이라는 단어는 그 유한한 종말이나 생애의 신산辛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삶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의 운명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말”(89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타이웨이는 특정 취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 스타일에 이어 바로 이 취향을 통해 사회구성이 분절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후예와 문정수, 노목희에게는 독특한 음식 취향이 있다. 후예는 잠수 일을 하고 꼭 초코파이를 먹는다. 3개를 연거푸 먹을 때도 있다. 문정수는 노목희를 주로 일과가 끝난 심야에 찾아가는데, 반드시 비닐 봉지 안에 음식을 들고 가서 먹는다. 그 봉지 안에

19) 피에르 부르디외, 앞의 책, 58면.

는 예외 없이 튀김, 김밥, 떡볶이 같은 인스턴트 음식이 담겨 있다. 소설에는 이 인물들이 헤어 나오지 못하는 맛에 대한 묘사가 있지만, 과연 후에는 정말로 초코파이를 그토록 좋아하는 것일까. 이 물음은 문정수와 노목희는 정말로 김밥과 라면 같은 것을 그토록 좋아하는 것인가라는 물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 누구도 그 야심한 시각에 그들에게 정찬을 제공한 바 없기 때문에 그들이 유독 그것만을 정말로 좋아서 즐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르디외는 취향이야말로 ‘계급’의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²⁰⁾ 취향은 칸트가 말하듯이 ‘차별화’하고 ‘평가’하는 획득된 성향일 수 있다.²¹⁾ 특히 사치 취향과 필요 취향의 개념 분류는 취향의 숨겨진 의미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 행동의 영역과 이를 한참 넘어선 영역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진정한 원리는 사치 취향(또는 자유 취향)과 필요 취향 간의 대립에서 찾을 수 있다. 사치 취향은 ‘필요로부터의 거리’, 자유 또는 자본의 소유가 보장해 주는 용이함에 의해 규정되는 물질적 존재조건의 산물이다. 필요 취향은 필요의 산물로 바로 그 필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본모습을 드러낸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가장 영양가 있는 동시에 가장 저렴한 음식물에 대한 대중적 취향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 취향은 운명적 사랑 amor fati, 운명의 선택이지만, 강요된 선택으로, 필요 취향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능성을 순진한 몽상으로 배제해 버리는 생활조건의 산물이다.²²⁾

후어의 초코파이 취향은 말할 것도 없고, 요리된 음식이라는 점에서 초코파이보다는 조금 고급화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김밥, 라면 등에 대

20) 피에르 부르디외, 앞의 책, 22면.

21)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下』, 새물결, 2006, 836면.

22)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새물결, 2006, 323~25면.

한 문정수-노무희의 취향은 실은 강요된 선택, 운명애의 형식 이상이 아니다. 몸이 기억하는 중독성이 “정서의 밑바닥에 인 박여 있”²³⁾다면, 그것은 필요 취향의 “신체 속까지 새겨진 낙인”²⁴⁾일 뿐이다. 반면 타이웨이는 이런 ‘필요 취향’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는 ‘자유 취향’의 인물인 것이다. 언어 스타일에 이어 이렇게 취향의 사회학을 통해 계층이 어떻게 구조화돼 있는지를 어느 정도 분명히 가시화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을 결정적으로 구별짓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노동 행위이다. 타이웨이에 대해서 문정수는 “세상의 어떠한 고통과 야만도 멀리 밀쳐놓고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서 즐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자겠구나”(112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문정수의 생각이고, 공자라면 아마도 이런 타이웨이의 노동은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²⁵⁾의 노동이라고 이름했을까도 모른다. 단지 얇이 목표인 것이 아니라 나아가 지식의 대상을 좋아하고 즐기는 경지의 노동이 타이웨이의 지식생산노동일 터이다. 마르크스는 보다 구체적이다. “사적 소유로부터 해방된 노동에는 우리의 모든 감각과 능력, 요컨대 ‘보기, 듣기, 냄새 맡기, 맛보기, 만져보기, 사유하기, 명상하기, 느끼기, 원하기, 활동하기, 사랑하기 등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들’ 모두가 동시에 관여하게 된다.”²⁶⁾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이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 삶의 전쟁터에서 먹이와 생존을 놓고 벌이는 소외의 노동이 아니다. 이 노동의 반대편 삶의 막장에 후예의 노동이 있다. 좀 길게 인용해 보자.

23) 김훈, 『라면을 끓이며』, 문학동네, 2015, 11면.

24) 피에르 부르디외, 앞의 책, 326면.

25) 이 대목의 우리말은 옮김은 이렇다. “ [어떠한 학문이나 일에 대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한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공자, 박종연 옮김, 『논어』, 을유문화사, 2006, 176면)

26) 안토니오 네그라미켈 하트, 정남영·윤영광 옮김, 『공통체』, 사월의책, 2014, 75면에서 재인용.

장철수는 엔진을 1단으로 낮추어 바람 앞에 엎드렸다. 무인등대 앞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 때 배가 왼쪽으로 뒤틀리면서 파도 한 자락이 배 안쪽을 때렸다. 장철수가 뒤쪽을 돌아보았다.

—괜찮아? 젖었니?

후에는 고물 쪽에 실린 자동차 타이어 위에 앉아서 두 팔로 무릎을 싸 안고 윗몸을 꼬부렸다. 어둠 속에서 후에의 몸은 한 움큼으로 보였다. 해풍에 날려갈 듯이 작고 가벼운 몸이었다.(150~51면)

장철수가 돌아보면 배 뒤쪽에 실린 포탄 껍데기 위에 쪼그리고 앉은 후에의 몸은 언제나 한 움큼이었다. 후에는 초코파이를 먹고 페트병에 담긴 물을 마셨다. 양재기로 갓을 씌운 30축 전등이 바람에 덜그덕거렸다. 흐린 불빛 아래서, 후에의 어깨에 소름이 돋아 있었다.(…)

후에와 함께 물밀을 뒤지는 날도 끝나가고 있음을 장철수는 알았다. 다시 해망을 떠나야 하는 것인지를 장철수는 생각했다. 배 뒤쪽에서 후에는 늘 한 움큼이었다.(290~93면)

“언제나 한 움큼”이고 “늘 한 움큼”인 후에의 노동은 좋아하고 즐길 수 없는 것이며, 세계와의 모든 관계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끊고 다만 해저 막장에서 숨을 참아야 하는 것이다.

4. 공유수면의 비극과 사랑의 가능성

장철수와 후에가 인양하는 고철은 미군의 폭격 훈련이 남긴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지만 막상 그 고철이 돈이 되자 국가의 통제와 관리가 살아나고, 국가는 채굴 사업권을 유력 민간업자에게 양도한다. 양도 과정은 “해저 고철의 물량 전체에 광업권鑛業權에 속하는 국유공물國有公物의 지위를 부여해서 해방군청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군청이 그 인양 및 처분의

사업 시행을 민간업자에게 허가하는”(287면)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국가의 조치는 특별히 자본 친화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저 광물에 대해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 소유권을 민간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은 투자금이 있는 자본가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다. 공적 소유의 지배, 즉 국가의 통제와 규제 아래 자본의 사적 소유의 지배로 환원되면서 ‘공통적인 것(the common)’²⁷⁾으로 여겨졌던 것은 그것에 최초로 접근했던 가난하고 무력한 개인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 권력이 가난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공적 메커니즘에 대해 작가의 태도는 적발과 폭로의 목소리를 키우지는 않지만, 인물 설정 자체에서 숨길 수 없는 비판의지가 드러난다. 장철수는 일개 범법자 신세가 되어 해저 고철물 수집에 관한 모든 합법적 지위를 상실할 때, 전직 소방관으로서 귀금속 절도 전력이 있는 박옥출이 광업권을 갖는 민간업체의 전무가 된다. 장철수의 죄목은 “등록이 말소된 1.5톤짜리 폐선에 원동기를 불법 부착해서 허가 없이 운행”(299면)한 죄이고, 접근이 금지된 해역에 상습적으로 무단잠입한 죄이다. 범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행한 생계형 생활 범죄이기 때문에 면죄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의 합법적인 사업과 가난한 사람의 불법이 나란히 정당화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수중 고철에 대한 권리를 개인으로부터 빼앗아 국가가 그것을 되돌려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세 개인과는 비교될 수 없는 투기 자본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해 버리는

27) 공통적인 것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쉽게 정의될 수 있다. 즉 공통적인 것은 첫째, 사적인 것이 아닌 것이고, 둘째, 공적인 것도 아닌 것이다. 공통적인 것은 사적인 소유의 지배와 대립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소유의 지배, 즉 국가의 통제와 규제에 대립한다. 공통적인 것은 개방적 접근과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결정 및 자주관리로 정의되는 부의 한 형태이다. 공통적인 것은 물질적 형태의 부와 비물질적 형태의 부 모두에 적용된다. 지구와 생태계, 수자원, 해양, 토지 등이 전통적으로 지목되는 물질적 형태의 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안토니오 네그라미아를 하트, 앞의 책, 16면.

방식은, 인간들의 사회적 삶의 가능성의 조건을 철저히 소유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과 조치는 공통적인 것으로서의 수중 자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누구의 것도 아닌, 그래서 누구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대의 구호에는 “공유수면은 누구의 것이냐.”(189면)라는 것이 있다. 해망의 사람들은 “공유수면의 공유公有는 갯벌이 주민들의 공동소유라는 뜻이 아니고 정부가 배타적으로 갯벌을 독점한다는 뜻”(138~39면)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수중고철 소유권과 접근권에 대한 국가의 행정 조치는 자본주의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유럽의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²⁸⁾ 당시의 ‘인클로저’ 행위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측면이 있다. 울타리 치기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까닭은 가령, 개릿 하딘이 그의 유명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유지의 자유로운 이용이 정당하다고 믿는 사회에서 모두가 자신만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며 돌진할 경우 결국에는 파멸할 뿐이라는 우려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⁹⁾ 그러나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유지의 희극」으로 하딘의 주장을 정면으로 논박하는 로즈에 의하면 순수한 사유재산과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재산’ 외에 정부든 개인이든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뚜렷이 다른 부류의 ‘본질적 공공재산’이라는 것도 있다.³⁰⁾ 다만 김훈의 인물들은 이런 공유와 공동의 상상력이 작동되지 않는 사회에 갇혀 있을 뿐이다. 오직 자본의

28) 인클로저는 우리말로 하면 ‘울타리 치기’ 정도가 된다. 중세 유럽에서 개방 경작지와 공유지, 향무지 등에 울타리나 담을 둘러치고 사유지임을 명시한 일종의 토지 개척 운동이다. 이 운동은 봉건사회의 몰락을 이끌고 근대 시장경제, 나아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태동시켰으나 시골의 공유체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를 “가난한 자들을 상대로 한 부자들의 혁명”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러미 리프킨, 안진환 옮김, 『한계비용 제로 사회』, 민음사, 2014, 34-35, 52-57면.

29)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December 13, 1968, p.1244.

30) Carol Rose, “The Comedy of the Commons: Custom, Commerce, and Inherently Public Property”,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53(3), 1986, p.720.

소유를 기준으로 조직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개인들의 위치는 이중적이다. 형식적으로는 그들은 법적 인격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경계 바깥으로 밀려난다.³¹⁾ 이 경우 범이란 다름 아닌 자본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개인의 삶을 빈틈없이 소유의 위계에 종속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것이다. 즉 법에 의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법칙처럼 보여지게 된다.

그러므로 줄지에 생계를 잃고 범법자가 된 장철수의 불행을 주도하는 것은 국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유 공화국이다. 소유 공화국에 의해 소유하지 못한 장철수는 발가벗겨진다. 생계를 잃은 장철수는 신장 매매 조직에게 장기 밀매를 하고, 그 밀매된 신장을 박출율이 사서 건강을 회복한다. 신장 매매 대금으로 장철수가 하는 일은 우선 벌금을 내는 것이다. 벌금은 범법행위 1회분 벌금에 행위했수 300을 곱한 액수다. 장철수의 벌금 납부는 이렇게 소유의 위계에 종속되어 소유 체제를 떠받치는 행위로부터 이탈할 수 없는 강요된 선택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주체로서의 장철수의 가능성이 살아나는 것은 그가 벌금을 납부하고 남은 나머지 돈을 후에게 주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후에게 무슨 빛이나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고철을 팔고 돌아오는 날이면 그날 당일 저녁에 장철수는 자신이 받은 돈의 절반을 후에게 공정 분배했고,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처럼 장철수와 후에는 내연관계가 아니다. 단지 협력, 협동 관계일 뿐이다. 그렇다면 후에게 대한 장철수의 배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장철수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장철수는 지방대 농대 졸업생이고, 돼지 주사 하나 제대로 놓지 못하는 시원찮은 약력의 소지자이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학교 운동권 주변을 배회하는 자이고, 그 운동권 동료들을 배신한 자이고, “웃자라서 휘청거리는 말로 세상을 규정할 수 있는 것

31) 안토니오 네그라마이클 하트, 앞의 책, 569면.

인지”(31면) 의심스러운 수준의 말이나 하는 인물이다. “인간은 비루하고, 인간은 치사하고, 인간은 던적스럽다. 이것이 인간의 당면문제다. 시급한 현안문제다.”(35면)라는 말은 운동권에서 비판적으로 회자되는 장철수의 어록이기도 하다. 이 어록에는 ‘인간’이 거듭 등장하지만 인간은 구체적이지 않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때의 현재성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일종의 허망한 관념성이 실질적인 내포를 갖지 못하고 위기의식을 과장하며 허세를 부린 셈인데, 작가는 이러한 장철수에게 옷 하나도 제대로 입히지 않았다.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는데, 소매가 늘 팔꿈치 아래 뭉쳐 있는 사람이 장철수이다. 장철수의 이러한 모양빠짐의 설정 자체가 노동자 계급의 성장과괴에 다름 없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작가는 바로 이 장철수에게 자본주의적 일상성 외부를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의 단초를 부여한다.

후에와의 관계에서부터 장철수의 변화가 찾아온다. 후에와의 관계란 노동의 협동관계에 한정된 관계이다. 사적 소유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노동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인간적인 것으로부터의 소외일 터인데, 장철수-후에의 협동 작업은 그들을 단지 노동하는 추상적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특히 손수레를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서 고철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 후에를 빈 수레에 태워주는 장철수의 행위는, 경제적 동기 이상을 찾을 수 없는 고단한 노동을 그 노동의 한계에 가두지 않고 가치 있는 인간 활동으로 전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관계의 노동을 통해 장철수의 악력이 되살아난다. 과거 창야에서 “혼곤한 잠에서 깨어났을 때처럼 손아귀에 힘이 빠져서 손가락을 오므릴 수 없고 연장을 잡을 수 없고 사물을 쥘 수 없는 시간”(165~66면)을 뒤로 하고, 이제 해망에서 “빈 수레에 후에를 태우고 돌아올 때, 장철수는 창야경찰서 최형사가 말했듯이 손아귀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악력을 느꼈다.”(298면) 바타이유는 거머쥘 수 없는 손아귀의 행위로 ‘타자’를 묘사한 적이 있는데,³²⁾ 타자의 타자로 머물러 있는 한 과거 장철수가 경험했던 저 악력의 무력 상

태는 개선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삶을 꾸려나가는 힘, 세계와 맞서며 삶의 의미로 주체를 구성해 나가는 힘이 바로 악력에서 비롯된다고 한다면, 장철수에게 악력이란 단지 건강의 척도가 아니다.

신장 밑매 대금에서 벌금으로 낸 나머지 금액을 후에게 주었을 때, 돈이 등가의 교환가치라면 장철수는 후에게 자신의 몸을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장철수는 자신에게 남은 돈, 혹은 남아도는 자금의 일부를 준 것이 아니다. 후에게 준 돈은 장철수에게 남은 모든 것이다. 자고로 사랑에서 몸을 주는 행위는 메타포가 아니다. 돈은 교환가치이면서 사회적 가치이기도 하다. 사랑의 대상에 몸을 바치는 이 인신공회가 재현하는 사회적 가치의 이름은 '사랑' 말고는 달리 뭐라 규정하기 힘든 것이다. 예로부터 사랑은 가난으로부터 태어난다는 신화도 있다. 『향연』에서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에로스(Eros)의 어머니는 가난의 여신 페니아(Penia)이다.³³⁾ 장철수의 행위는 그것을 어떻게 명명할 수 있는지를 넘어 이 세상의 모든 척도를 초과하고, 더 이상 자본주의적 착취 메커니즘에 포획되지 않는 것이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가. 신장과 맞바꿀 만큼 그것은 장철수에게 소중하다. 최소한 그것 없이는 삶이 힘든 것이거나, 치명적으로 불가결한 것이다. 장철수는 제 몸 하나도 온전히 간수할 수 없는 지경의 가난이라는 자신의 계급적 특수성을 가로지르는 단독적 보편성을 추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사실상 현대 세계, 세속화된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규범에 반항한다.³⁴⁾ 사랑은 적어도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태도가 아닌 것이며, 이해관계의 산물이 아닌 것이다. 사랑을 자신의 철학 용어로 진리를 구축하는 사건이라고 보는 알랭 바디우에 의하면, 사

32) 바타이유,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79면.

33) 플라톤, 천병희 옮김,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향연』, 숲, 2017, 328면.

34) 알랭 바디우, 김태환 옮김, 『사랑의 재발명』, 한병철, 『에로스의 종말』, 문학과지성사, 2015, 5-6면.

랑이라는 사건과 일상적인 규칙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된 척도도 존재하지 않는다.³⁵⁾ 그렇다면 우리는 장철수의 사랑을 자본주의의 세속화된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장철수의 사랑은 아직 발전 가능성, 지속성이 불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성적 욕망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희미한 가능성이다. 그러나 랭보의 말대로 사랑은 재발명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³⁶⁾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의 이 드문 가능성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으로 분명하고 또렷하게 식별하고 옹호해줄 필요가 있다. 사실 김훈 소설의 문법에서 사랑은 늘 재발명되기를 바라는 운명 속에 있는 언어이다. 사소하고 내밀한 위로를 나누고 몸을 섞는 연인 문정수와 노목희의 행위는 작가에 의하면 ‘연민’ 정도이지 ‘사랑’까지는 아니다.³⁷⁾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인가. 이 물음은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로 다시 물어지기를 요청하는 물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물을 때 사랑은 이제 적어도 통속적으로 자명하거나 습관적인 것은 아니다. 사랑은 그 불가능성으로 비로소 사랑이라고 김훈은 『칼의 노래』에서 적은 바 있다.³⁸⁾ 사랑은 단지 현

35) 알랭 바디우는 말한다. “물론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다는 확신이 매우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에 대한 하나의 반증(反證)일 것입니다. 서로의 이익만을 쫓기 단순한 교환처럼 인식되지 않으며, 미리 수익성을 기대하고 진행되는 투자처럼 장기간 계산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랑은 진정 우연으로 인해 발생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알랭 바디우, 조재룡 옮김, 『사랑 예찬』, 길, 2010, 27면)

36) 김훈은 이 대목을 ‘재발명’ 대신 ‘재창조’로 번역했다. 대략 맥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은 재창조해야 되는 것인데, 여자들은 안전한 자리를 원할 줄밖에 모르거든. 자리가 잡히면, 마음이나 아름다움은 저리 가라지. 차디찬 멀시만이 남는데, 그게 요새 결혼의 먹이야. (...)”(아르튀르 랭보, 김현 옮김, 『헛소리』, 『地獄에서 보낸 한 철』, 민음사, 1978, 66면.)

37) “한밤중에 라면을 끓여서 나누어 먹으면서 대과와 달걀과 라면 국물과 파미르 고원에 관하여 주고받는 이야기는 하찮았지만 거기에는 하찮음만큼의 위안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문정수가 놓쳐버린 것들, 혹은 놓아버린 것들을 향해서 괜찮아……내버려둬……라고 말해주는 일은 평화로웠다. 그 평화는 사랑이라고보다는 연민일 것이라고 욕실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노목희는 생각했다.”(221면. 밑줄 강조는 인용자)

38) 사랑의 불가능성이라는 문제는 김훈 소설의 배면에 일관되게 자리잡고 있는 도저한 문학적 자의식이기도 하다.(김주언, 『김훈을 읽는다』, 삼인, 2020, 1장 참조) 김훈은 『칼의 노래』로

상 개념이라기보다는 실현되어야 할 가치 개념인 것이다.

사적 소유에 기반한 근대정치체제의 한계를 폭로하고 가난과 사랑 그리고 공통적인 것에 기반하여 자유의 정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입장³⁹⁾에서 보자면, “사랑은 비참과 고독의 삶을 떠나서 다중(the multitude)을 만드는 기획에 참여하는 민자의 힘이다.”⁴⁰⁾ 『공무도하』가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는 힘으로서의 사랑이나 악과 싸우는 힘으로서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대신 작가 김훈의 선택은 급진적이지 않고 좀 더 소박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인문학상을, 「화장」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수상소감에서 일관되게 ‘사랑의 불가능성’을 언급한다. 『칼의 노래』 작가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랑의 불가능성을 정식화하고, 그 불가능성에 비극정신을 부여한다. “사랑은 불가능에 대한 사랑일 뿐이라고, 그 같은 나에게 말해 주었다.(…) 사랑이여 아득한 적이여, 너의 모든 생명의 합대는 바람 불고 물결 높은 날 내 마지막 다다 노랑으로 오라. 내 거기서 한 줄기 일자진(一字陣)으로 적을 맞으리.”(김훈, 『칼의 노래』 1, 생각의나무, 2003, 13면)

“사랑이여 아득한 적이여” 같은 점층 호격의 의미와, 죽음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고양된 비극정신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다시 임화(林和)를 추억함」이라는 제하의 동인문학상 수상소감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작가는 여기에서 “오호 적이여, 너는 나의 용기이다.”라고 임화가 미리 써놓았다는 묘비명을 언급하는데, 임화에게는 「적」이라는 시가 있다. 이 시에는 “오오! 사랑스럽기 限이 없는 나의 畢生의 동무/ 敵이여! 정말 너는 우리들의 勇氣다.”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시의 허두는 “네 萬一 너를 사랑하는 者를 사랑하면 이는 사랑이 아니라. 너의 敵을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者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한 대목으로 시작한다.(임화, 『回想詩集』, 建設出版社, 1938, 117~20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교리 덕택에 우리에게서 사랑이 끼리끼리의 친밀한 애정 놀이가 아니라 지난한 성취 가치가 된 측면이 있다. 임화의 난해한 과업으로서의 사랑도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김훈의 사랑의 불가능성 또한 일정 부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자동적으로 자명하게 그냥 사랑인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흔하고 차고 넘치는 사랑을 ‘사랑’으로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사랑스러운 것을 따라서 사랑스러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작가는 『칼의 노래』에서는 이순신을 생각하며 “사랑은 불가능에 대한 사랑일 뿐”이라고 정의한다. 사랑을 이렇게 규정할 때, 사랑은 사적 친밀성 속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만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대적 타자성의 시련과 도전의 과업 속에 있는 것이 된다.

39) 안토니오 네그라마이클 하트의 『공통체』 논의의 초점은 근대성의 지배적 제도 형태인 국가, 즉 소유 공화국을 대체할 정치적 대안 체제의 원리와 그 가능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다.

40) 안토니오 네그라마이클 하트, 앞의 책, 274면.

장철수가 벌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후에게 주었을 때, 그 돈을 받은 후에는 목돈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게 아니다. 후에는 다시 그 돈을 결혼중개업자에게 주었다.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가족들에게 준 지침금과 결혼 비용의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후에는 여전히 가난하다. 가난한 후에는 오금자와 같이 산다. 오금자는 강제철거가 임박한 빈민지역 주거형 비닐하우스에서 아들이 개에게 물려 죽은 후 방천석의 빈 집에 들어와 산다. 방천석은 간척사업 공사 도중 크레인에 치여 죽은 여고생 방미호의 아버지다. 후에는 자신의 돈을 오금자에게 맡기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소통하며 살아간다. 이 세상에 오직 혈혈단신 자신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 보상을 받고 고향을 떠난 상처받은 사람의 빈집에서 새 살림을 꾸려나가게 된다. 후예와 오금자의 관계는 가난한 자들의 사랑과 연대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부로, 가족으로, 민족으로 생산되고 또 기능하는 제도 장치들 속에서 살고 있다. 부부 관계를 통해 가족을 구성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정치가 국가의 소멸을 조직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랑 또한 이상적으로 가족의 소멸을 조직해야 한다면 가족이 사랑의 강제된 궁극 목적이라는 곤란하다.⁴¹⁾ 부부, 가족, 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익숙한 근대의 계약론적 관계가 만든 제도적 정체성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 어떤 특정 정체성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사랑이 있다. 장철수는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후예와 같이 살지 않는다. 모여서 같이 사는 후예와 오금자는 부부도, 가족도, 같은 민족도 아니다. 여기에서 출현하는 사랑은 특정의 제도적 정체성, 어떤 보상이나 대가 같은 가치로도 환원되지 않고 심지어 사랑의 실현 가능성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것이다.

41) 알랭 바디우, 서용순 옮김, 『철학과 사건』, 오월의봄, 2015, 85-86면.

5. 맺음말: 문학의 윤리

『공무도하』 텍스트에는 돈과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수없이 산포되어 있고, 정확한 금액 표기로 제시되기도 한다. “부동 자금”이나 “유동 자금”, “부동성 군소자금” 같은 아직 뚜렷한 실체를 갖고 있지 않은 돈과 자본도 이 흐름 속에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수면’이라는 기표도 도처에 현저하다.(137~138, 140, 153, 168, 178, 182, 189, 193, 206~207, 241, 265, 268, 273, 278, 294, 312면) 소설의 주요 무대가 공유수면의 매립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특정 어휘의 빈도수는 작가의 어떤 무의식의 표출로도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유’에 반하는 ‘공유’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떤 식으로든 내면화된 결과의 일단이 기표의 현실로 가시화된 것일 수 있다. 공유수면의 ‘공유’의 의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위를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관측은 전혀 근거 없는 억측만은 아닐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이 문제는 노동문제나 자본주의 근대성에 대한 사회경제학적 상상력이 더 진전될 경우 앞으로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김훈 소설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 일단 현재 단계에서 보자면 돈과 자본이 어떤 누구보다도 위력적인 숨은 주인공처럼 활약하는 김훈의 『공무도하』는 궁극적으로 문학의 윤리를 사유하게 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문학의 윤리는 다름 아닌 문학이 무엇을 옹호해야 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소설에 나타난 쉽게 잊을 수 없는 두 개의 불빛은 그러므로 윤리의 불빛일 수밖에 없다.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바를 밝혀주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주는 초점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면,⁴²⁾ 다음과 같이 김훈이 제시하는 두 개의 불빛은 뚜렷하게

42) 휴버트 트레이퍼스 손 켈리, 김동규 옮김, 『모든 것은 빛난다』, 사월의책, 2013, 181면.

문학의 윤리를 초점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결론 삼아 이 문제를 정리해 보자.

첫째, 신장 이식을 해주기 위해 수술대에 오른 장철수의 발가벗겨진 모습을 소설은 강렬한 불빛으로 비춘다. 극사실적인 조명 속에서 우리가 차마 정면으로 볼 수 없어 눈을 돌리고 싶은 자본의 민낯이 해부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장철수를 단지 희생자로만 보지는 않았다. 자본주의 돈과 자본의 정글에서 물신의 피조물에게도 과연 자유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공무도하』에서 이 물음은 형이상학의 물음이 아니다. 진정한 삶의 가능성에 대한 가치의 물음이다. 사랑이 힘든 것은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사랑을 사랑해 주고, 나아가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은 문학의 윤리이고, 문학 연구의 윤리이기도 할 것이다. 『공무도하』에서 장철수의 경우는 분명 이해관계나 보상심리를 떠난 단독적 보편성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신체 주권마저 앗아가버리는 화폐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이 사랑을 부정할 수 없고, 무효화할 수는 없다. 일방적인 돈과 자본의 리얼리즘의 승리가 아니라, 물신으로부터 자유가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은 바로 이 사랑의 영역일 것이다. 돈과 자본이 만드는 약속강식, 생존경쟁의 프로그램에서 이탈해 협력하고 약자가 자신보다 더 약자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자유는 손을 내미는 자의 것이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둘째, 소설은 30축의 희미한 등불로 후예의 심야 노동을 비춘다. 사위가 적막한 시점에 필사적인 노동을 멈출 수 없는 이가 있다. 그 노동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3장(章)에서 본 바와 같이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후예의 젖은 몸에는 추위에 소름이 돋아 있다. “양재기로 갓을 썩운 30축 전등”(290면)의 조도는 연민 정동을 밝힐 수 있을지언정 물론 인간 해방, 노동 해방의 새벽을 밝힐 수는 없을 터이다. 연민 정동은 추위에 오줌을 지리며 돌아나는 저 소름을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작고 희미한 사랑이다. 악의 세상에서 사랑의 힘은 악과 싸우는 힘이기도 해야 한다면, 이 점에서 『공무도하』에는 자본주의적 근대성에 맞서는 반근대적 주체성의 힘에 대한 강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무도하』는 문학이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분명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초점화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초점화의 강렬도야말로 현단계 김훈 문학의 윤리의식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김훈, 『공무도하』, 문학동네, 2009.
 ____, 『칼의 노래·1권』(재개정판), 생각의나무, 2003.
 ____, 『라면을 끓이며』, 문학동네, 2015.

2. 2차 자료

김윤식,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이데올로기 비판』, 서울대 출판부, 1987.
 김주언, 『김훈을 읽는다』, 삼인, 2020.
 신수정, 「세속 도시의 네안테르탈인」(해설), 김훈, 『강산무진』, 문학동네, 2006.
 우찬제, 「한국 현대소설의 경제적 상상력 연구: 1920년대 소설에 나타난 “돈”의 의미
 지 고찰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25~46면.
 임화, 『回想詩集』, 건설출판사, 1938.
 공자, 박종연 옮김, 『논어』, 을유문화사, 2006.
 Badiou, A., 김태환 옮김, 「사랑의 재발명」, 한병철, 『에로스의 종말』, 문학과지성사,
 2015.
 Badiou, A., 서용순 옮김, 『철학과 사건』, 오월의봄, 2015.
 Badiou, A., 조재룡 옮김, 『사랑 예찬』, 길, 2010.
 Bourdieu, P., 최중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새물결, 2006.
 Bourdieu, P., 최중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下』, 새물결, 2006.
 Braudel, F., 주경철 옮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1: 교환의 세계 上』, 1996.
 Dreyfus, H. Kelly, S., 김동규 옮김, 『모든 것은 빛난다』, 사월의책, 2013.
 Hardin, G.,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December 13, 1968,
 pp.1243~1248.
 Jameson, F., 황정아 옮김, 『단일한 근대성』, 창비, 2020.
 Lacan, J., 홍준기·이종영·조형준·김대진 옮김, 『에크리』, 새물결, 2019.
 Levinas, E.,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Marx, K., 강유원 옮김, 『경제학·철학 수고』, 이론과실천, 2006.
 Marx, K., 김수행 옮김, 『자본론 I[상]』, 비봉출판사, 2015.
 Negri, A. Hardt, M., 정남영·윤영광 옮김, 『공통체』, 사월의책, 2014.
 Platon, 천병희 옮김,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향연』, 숲, 2017.
 Rifkin, J., 안진환 옮김, 『한계비용 제로 사회』, 민음사, 2014.
 Rimbaud, A., 김현 옮김, 『地獄에서 보낸 한 철』, 민음사, 1978.

- Rose, C., "The Comedy of the Commons: Custom, Commerce, and Inherently Public Property",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53(3), 1986, pp.711~781.
- Simmel, G., 김덕영 옮김, 『돈의 철학』, 길, 2013.
- Spivak, G. et al, 태혜숙 옮김, 『서말뎀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 Watt, I., 강유나·고경하 옮김, 『소설의 발생』, 강, 2009.

<Abstract>

The Problem of Money and Capital in Kim Hoon's Novel

Kim, Joo-eon

This paper attempted to approach the world in depth of novels by using the concept of cultural capital as an analysis tool, distinguishing it from economic capital. The world structured by capital has an abstractness that is not easily identified.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capital, the evident characteristics of hierarchical society can be distinguished at three levels. First, there is a language style in which distinct contrast appears according to the class tendency of members of society. Second, taste in food which is divided into taste of freedom and taste of necessity can be presented as class tendency. Third, there is a type of labor in which polarization appears according to the ownership of cultural capital. Through the above analysis, we identified the aspect of hierarchical structure. Although it is a faint possibility, it was judg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thinking outside everyday life of capitalism. Finally, this research evaluated that this novel makes us think about the ethical issues of literature.

Key words: capitalist modernity, fetishism, cultural capital, sociology of taste, the common, enclosure movement, possibility of love

투 고 일: 2022년 1월 31일

심 사 일: 2022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10일

수정마감일: 2022년 3월 20일